



즉시 배포용: 2025년 12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학습 장애 학생들의 성과 향상을 위한 뉴욕 난독증 및 난서증 센터
설립 법안 서명**

*법안 A2687/S5569, 주 교육부 내에 난독증 및 난서증 센터를 설립하여 학교가 읽기 및
쓰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교에서 읽기 및 쓰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내에 난독증 및 난서증 센터(Center for Dyslexia and Dysgraphia)를 설립하는 법안 A2687/S5569에 서명했습니다. 난독증 및 난서증 센터는 주 전역에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K-5학년 및 신규 입학생을 위한 보편적 선별 기준을 설정하고, 근거 기반의 중재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책임, 선별 관행, 지침, 읽기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 효과적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사항을 다루는 안내서를 2년 이내에 개발하고,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 학생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는 교실에서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거의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저는 자녀의 학습 장애로 인해 교육 시스템을 헤쳐 나가고 있는 뉴욕 전역의 수천 가정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은 난독증과 난서증에 대한 21세기적 해답을 찾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뉴욕은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광범위한 노력에 보탬이 됩니다. 2023년, Hochul 주지사는 난독증 및 난서증 전담반(Dyslexia and Dysgraphia Task Force) 설립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전담반은 난독증, 난서증 및 관련 학습 장애에 대한 조기 선별, 중재, 교사 연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주정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1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시행되어 이 센터의 설립도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에 만들어진 주지사의 백투백 독서 계획(Back to Basics Reading Plan) 이니셔티브는 특히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 읽기 지도를 중심으로 하며, 모든 학습자,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운 인식 및 파닉스와 같은 구조화된 문해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전체적인 구조화된 문해 교육 추진은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의 읽기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연구에서 밝혀진,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Patricia Fah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대략 5명 중 1명의 아동이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뉴욕주는 이러한 학생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일관되고 근거 기반의 접근법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센터를 설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가족,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년간 필요로 해왔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 선별,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그리고 고품질의 전문성 개발은 사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뉴욕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읽고 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너무 많은 뉴욕 학생들이 오해받고 잘못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Bobby Carroll** 하원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뉴욕이 이제 난독증 학생들과 다르게 배우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국적인 선두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obert Carro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조기 발견과 실질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학교를 마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고, 다른 아이들이 저처럼 운 좋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께서 우리 주의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의 난독증 센터는 주 전역에 걸친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난독증과 난서증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구조적이고 순차적이며 누적적이고 다감각적인 문해 교육에 대한 연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뉴욕 전역의 옹호자, 교육자, 그리고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난독증 센터를 설립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러한 모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우리가 모든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지침이 계속될 것입니다."

Julie Menin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난독증과 난서증을 가진 수천 명의 뉴욕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교육부 내에 전담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교수법, 조기 진단,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한 더 나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학습 방식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육, 그리고 개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전담 사무실을 설립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Farah N. Louis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에 난독증 및 난서증 전담 센터를 설립하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뉴욕 전역의 가족들은 신경다양성 학습 요구의 전체 범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헤쳐 나가느라 힘들어해 왔습니다. 난독증, 난서증 및 이와 관련된 학습 차이를 가진 아동들은 교실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 개발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저는 센터의 시행과 그것이 제 지역구와 뉴욕 전역의 가족들에게 창출할 기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하며, 이번 노력은 우리를 그 약속에 한 걸음 더 가깝게 합니다."

Rita Joseph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서, 난독증이나 난서증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올바른 지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난독증 및 난서증 센터를 설립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학생들에게 마침내 일관성, 전문성,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줄 중대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조기 선별, 근거 기반의 교수법, 그리고 강력한 교사 연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계속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에 투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은 올바른 방향으로 힘찬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